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2호 [루게 제23044호] 주체99(2010)년 4월 2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해 나가자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대고조전군이 힘있게 벌여지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가 성파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선군시대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고 온 나라에 최첨단들과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52(1963)년 3월 22일 과학자, 기술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를 록음으로 청취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지금 온 나라의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갈 것임을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창조적힘과 지혜와 재능을 가장 높이 떨쳐야 할 때입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오늘 과학기술은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으로, 국력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로부터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였으며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를 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으로 내세우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커다란 힘을 넣고

다. 이번에 진행된 선군시대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는 가장 혁명적인 우리의 사상과 총대와 함께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불멸의 강국으로, 모든것이 흥하는 참다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나가려는 우리 당의 드림없는 의지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커다란 공헌을 하여왔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다는 신념으로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고심어린 탐구와 피하는 노력으로 미래를 개척해온 선구자들이 바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다. 오늘과 같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주체철생산체제완성과 비날론공장현대화를 비롯하여 도처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실현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날수 있는것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때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당과 수령의 평도말에 오랜 력사적투쟁속에서 마련된 우리의 과학기술적로선과 잠재력은 대단하다. 세계의 최첨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과학기술의 위력은 특히 변이난 지남해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남김없이 파시되었다. 우리 나라가 인공지구위성제작국, 발사국으로, 핵보유국으로 불패의 위용을 떨치고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게 되었으며 핵심기초기술을 비롯한 중요과학기술 분야들이 우리 식으로 개척되고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다. 과학기술에 의하여 민족번영의 미래가 개척되고 나라의 존엄과 영예가 떨쳐지는 오늘의 시대에

세계에 당당히 자랑할만 한 강력한 과학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며 재부족의 재부이다. 현실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 그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다해낼수 있는 우리 과학기술의 무한대한 위력에 대하여 가슴깊이 절감하게 되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기에 강성대국건설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는 신심과 락관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었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력사적인전군이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두뇌전, 기술전으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사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데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자랑한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길이 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기술을 개척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은 강성대국건설대진이 벌어지는 격동적인 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데없는 보람과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과학혁명, 기술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우리 당의 최첨단들과사상을 실현으로 빛내이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은 최단기간에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의 선진수준에 올려세우며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정당한 로선이다. 여기에는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뿐아니라 과학기술강국으로 세계에 높이 떨치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선포의 승진고가 울려 퍼질 그날을 앞당겨나가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대고조의 승리가 있고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주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 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평도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에 강성대국건설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지하여 풀어나가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로부와 리상들을 높이 세우고 최첨단들과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속도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로부와 리상, 견인 불발의 투쟁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적 연설을 록음으로 청취하면서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과학기술성파로 보답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었다. 이 세상 끝까지 위대한 장군님만을 받들어나갈 것임을 신념,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의 부리가 되고 밀거름이 될 비상한 각오, 최첨단과학기술성파로 김일성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누리며 높이 떨쳐지는 결사의 의지, 이것이 대회장에 차넘친 고결한 총칭의 세계였고 드높은 혁명적열정이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이런 정신력이 폭발할 때 어디서나 최첨단들과의 합성이 터져나오고 우리 조국은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이 활짝 꽃피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더 빨리 추주쳐오르게 될것이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최단기간에 최첨단의 요소를 접할 포부와 지향, 불굴의 투지를 지니고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야 한다. 목표를 내세워도 세상을 들었다놓을수 있게 통이 크게 내세우며 남들이 백점을, 천점을 걸은것을 한걸음에 뛰어넘으며 비약하고 또 비약해나가야 한다.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최첨단의 개척자, 정복자가 되려는 원대한 리상을 가지고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창조적힘과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나가야 한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중요부분 기술공학을 세계선진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새 재료, 새 에너지를 개발하고 우주기술을 비롯한 최첨단과학기술분야들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애써 배우고 또 배우 최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자기 부문 과학기술에 정통한 실력자로, 당과 조국의 유능한 과학기술역군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실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기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되었다. 뚜렷한 목표와 완강한 신념으로 인민경제현대화, 정보화를 훌륭히 실현하고 새로운 농작물재배기술과 수의축산 기술을 연구도입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한 경험들은 오늘의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파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전반의 현대화를 다그쳐 금속, 기계,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모든 공업부분들을 CNC화하며 과학과 기술, 생산이 일체화된 고도기술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특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인 경공업과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누구나 들끓는 현실속에서 새롭고 발전적인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종자로 찾아내고 끝까지 해결해나가는 실천가형의 과학자,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 누구나 기술혁신운동의 담판자가 되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 대중의 창조적힘을 강화하며 집체적지혜와 힘으로 새 기준, 새

기풍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 기술의 보급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선도자가 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속에서 제기되는 기술창조의 조직자가 되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앞장에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해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높은 책임성과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과 당적지도를 짜고들어야 한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도 더욱 강화하며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과의 투쟁을 심화시켜 온 나라에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자남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나라의 귀중한 인재로 키우고 잘 이끌어주어 그들이 이번 대회에서 맹세하던대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선군시대 지식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최신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높은 실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 참담계 이바지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과학기술강국건설의 휘황한 실계도를 따라 오날 우리의 과학기술은 웅대한 발전전력을 가지고 최첨단을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였다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이 1일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였다.

위대한 당의 평도따라 최첨단들과의 전초병, 과학기술강국건설의 기수로서의 영예를 떨쳐가는 공

지를 안고 광장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일제기 주체적인 과학건설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휘몰아쳐있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이 촬영에 함께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몸같이 뭉쳐 울려퍼지는 공중합창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요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적

을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가 펼친 꿈같은 현실

20명미만의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전국각지 500여개 분교들에서도 일제히 개학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어머니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온 나라의 학교들이 뜻깊은 주제 99 (2010)년의 새 학년도를 맞이하였다.

4월 1일, 조국의 북변 하늘아래 첫 동네로부터 서해의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에 일제히 천수백개의 분교들에서도 일제히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배움의 꽃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분교들가운데는 20명미만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만도 500여개나 된다.

개학날 지방당, 정권기관의 책임인원들이 분교들에 찾아가 학부모들과 함께 학생들을 축하해주었다.

외진 섬, 두메산골 한두명 어린이의 마음속에도 그들이 절세라 정규교육체제와 조건을 다 갖춘 학교들이 세워지고 누구나 무료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마음껏 공부하는 이 광동적인 화풍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과 국가가 마련해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하에서 년대와 세기를 이어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도시로부터 머나먼 산간마을과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교육망으로 덮여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학생이 다반반적인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의 고마운 혜택을 받으며 마음껏 공부하고 있다.》

후대 교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들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6 (1947)년 9월 양덕군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는 산간대 학생들의 등교길을 해 어려서도 분교를 내올데 대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셨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밑에 통학조건이 불리한 곳들에 분교들을 내올데 대한 국가적인 결정과 지시들이 나오고 전 사회화관심과 지원속에서 수많은 분교들이 온 나라 곳곳에 일제히 세워졌다.

승고한 후대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멀리 있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친어버님정도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기에도 분교들의 설립과 교육사업, 운영에 깊은 관심을 들리시고 크나큰 은정을 쏟으셨다.

교육사업을 나라의 흥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신 김제위인들의 사랑의 손길아래 옛날에는 학생이 학교에 찾아가 배웠지만 로동당시대에 한명의 학생이 있는 외진 곳에도 국가가 학교를 세우고 배워주는 동서고급을 튼튼히 후대교육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령토가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우리 나라에 10명미만의 학생을 위한 분교만도 100여개나 된다.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혜택은 망망대해에 있는 조국의 외진 섬들에 뜨겁게 미치고 있다.

서해의 크고작은 섬들에 세

워진 수많은 분교들가운데는 졸업한 《고난의 행군》시기 3명의 아이들을 위해 설립된 람도분교가 있다.

간헐적이긴 하지만 함께 새로 생겨난 이 작은 등대섬에 교구비품과 직판물, 동식물표본 등 교수교양수단들을 그치지 않고 수학교 분교가 주제 84 (1995)년에 일제히 세워졌으며 도시에서 자진해간 교원의 자녀들을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물에서와 똑같이 개학모임을 가지고 첫 수업을 하여 온 나라 인민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서도와 자매도에 평범한 등대원들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학교 분교들이 나오고 교육 조건보장을 위해 직송기차복장까지 담았으며 개학이 늦을새라 교원들을 태운 비행기가 날고 단 한명의 학생을 위한 졸업식이 뜻깊게 마련되었다.

지금도 햇빛밝은 이곳 교정들에서는 각각 한명의 학생이 웃으며 배우며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신의주시의 수운도에도 한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분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은 물론이거니와 10명 아이들을 위한 분교를 세우고 이의사기 보내준것을 비롯하여 철산군 판도, 가도, 관산군 의왕도 등 내려앉던 세월 새삼스럽게 밀려났던 섬마을 그 어디나 훌륭한 배움터가 마련되어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주제 89 (2000)년 한 해에 30여개의 분교가 각지에 일제히 세워져 삼수발전소건설

에도 분교들이 수많은 일제히 세워졌다.

북변의 벽동군에서도 제일 궁벽한 산간오지에 설립된 승변중학교 창주분교는 온 나라에 잘 알려져 있다.

교직원까지 훌륭히 갖추고 도시학교 부럽지 않게 꾸려진 이곳 분교에서는 당의 교육사업을 받들고 수십년세월 산골마을의 교정을 지켜 후대들을 위해 진정을 바친 선군시대의 영웅교원도 배출되었다.

강령군 식어리소재지에 세워진 수리나 멀어진 마을에 개교후 지난 27년간 10여명의 학생을 졸업시킨 형제산분교가 있고 화평군 부남리에만도 30여명의 학생들을 위해 3개의 분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북단 온성군의 막바지마을로부터 부전군의 립산마을들, 법동군의 심심산골마을과 개성시의 분계연산마을들에 이르기까지 조국방방곡곡에 불과 몇명의 학생들을 위한 분교들이 세워져 배움의 종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다.

강 하나,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아이들의 통학길이 멀어질새라 따로 학교를 세워주는 우리 당의 사랑속에 대동단의 삼천리마을에 분교마다 분교가 생기고 김형권군, 풍서군, 운봉군에 각각 10여개의 분교들이 설립되는 등 광강도에도 20명미만의 학생들을 위한 분교가 80여개에 달하고 있다.

주제 89 (2000)년 한 해에 30여개의 분교가 각지에 일제히 세워져 삼수발전소건설

과 함께 개마고원에 여러개의 분교들이 증설된것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등교길을 따라 배움의 요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조국방 방방곡곡의 분교들에서는 세 세기에 들어와서만도 1만여명이나 더 많은 학생들이 희망의 나배를 펼쳐며 사회주의복을 누리고 있다.

해마다 섬마을분교들의 학생들이 물의 아이들처럼 2월 명절을 즐겁게 쇠고 마음껏 공부하도록 은정어린 선물과 교구비품, 학습용품들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하늘길을 날고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전용통학열차, 통학배, 통학버스들이 달려 사마의 다리가 일떠서는 인류교육사에 전무후무한 전설적인 서사는 조국의 년대기에 수없이 아로 새겨지고 있다.

교육반을 권리가 오직 돈에 의해 결정되고 학원이 돈만이 마당으로 전락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 현실은 당과 국가가 고려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의 학부형이 되어 후대교육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에서만 꽃피울수 있는 인민의 리상이다.

우나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 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고 재능과 희망을 꽃피우는 세 세대들의 창창한 미래와 더불어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제대국으로 단방에 자랑될것이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다

희망찬 주제 99 (2010)년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다.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제대국으로 빛내일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교원들, 근로자들은 새 학년도를 맞으며 세 세대들을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인재로, 최첨단과학의 주인으로 믿음직하게 키워낼 일군안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보다 개선하였다.

수도 평양과 조국의 최북단 온성군으로부터 분계연선의 개성시, 서해의 외진 섬 람도에 이르기까지 각지에서는 학생들의 교복과 학습용품을 비롯하여 개교준비사업을 적극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다.

각급 학교들의 교구비품과

실질실습, 체육문화기자재, 교편물 등이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갖추어졌다.

1일 전국의 대학, 전문학교, 중, 소학교들에서 개학식이 진행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기송희령제1중학교, 금성제1중학교, 문천시 문천중학교, 학원군 서중중학교, 김성주중학교, 평양보통중학교, 평양통려중학교, 평양사육소학교, 신의주시 백사중학교, 사리원시 영광중학교, 원산시 양지중학교를 비롯한 모든 대학, 학교의 개학식장들은 기쁨에 넘친 신입생들과 교직원, 학생들, 학부형들로 흥성이었다.

당, 정권기관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 학부형들이 신입생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개학식에서는 보고와 토론

들이 있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후대교육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깊이 새기고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선군조건을 때때고나갈 혁명인재로 준비하며 교원들이 정치적 무적자질을 높이고 교수교양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학식들이 끝난 다음 풍소리가 울려 퍼지자 새 학년도 첫날 수업이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배움의 꽃대문으로 들어서서 선군시대 행복동들이들 - 평양제4소학교에서 - 본사기자 정순애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쁨공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쁨공전을 찾아 1일 프라모드 미탈 인디아 글로벌 강철주식회사 회장, 조선인간재현행진상조사단 일본인중증양분부 공동대표 하라다 아끼히로를 단장으로 하는 일조

국교정상화를 촉진하는 가나가와현민의 회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우리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으며 세계사주화위업

【조선중앙통신】

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대성산혁명렬사릉과 평양방직공장 참관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이 1일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활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니이신 리리보의녀사의 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니이신 강만신사사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이어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고 유서깊은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그들은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인류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대대로 애국적인 만경대일가분대로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은 참가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혁명렬사릉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조국의 해방과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항일혁명렬사릉의 승고한 정신을 다시금 새기었다.

평양방직공장을 찾아 현대적으로 꾸러진 생산공정을 돌

아보며 그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들켜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올해공동사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에 제시된 전 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만경대 주민들의 투쟁을 과학기술로 담보함으로써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며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데 기여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지식인들에게 국가 학위 학식 수여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식이 수여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지식인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과학기술강국건설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과학연구와 후대교육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고 조국의 통일번영에 이바지하였다.

수여식이 1일에 진행되었다. 수여식에서는 국가학위학식

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정형외과진료병원 원장 원동진 등에게 후보원사칭호가 수여되었다.

또한 평양기계대학 강좌장 리오양에게 교수의 학식이 수여되었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 연구사들이 최진근, 홍성복, 라남관기계연립합기업소 소장 현용희, 김책공업종합대학 실장 김영철, 연구사 김인철, 평양기계대학 교원 김재운, 리파대학 학부장 조세영, 라진해운대

학 교원 김영희, 국가과학원 실장들인 서해운, 김용걸, 한창복, 부원 김평선, 연구사 김학관, 농업과학원 연구사 채명호, 사회과학원 실장 리기만, 연구사 황경오, 사회과학출판사 사장 서광운, 국가영화위원회 심의원 리수도,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소장 김경남 등에게 박사의 학위가 그리고 25명에게 부교수의 학식이 수여되었다.

이어 열의토론들이 있었다. 수여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작품집에 어려 있는 값높은 삶의 자욱

2중3대혁명붉은기

—미메에 대한 신념과 학안이 없이는 문명 생활을 창조할수도 향유할수도 없다.

이것은 최근 몇해사이자 제의 학과 지체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특한 후방기지들을 꾸려놓고 창조와 혁신으로 보장한 삶을 꽃피워가는 대동강건제기동련단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두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터치는 격정의 목소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삶의 근지와 보람은 결코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향락을 누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뚫어 써주는 창조와 투쟁속에 있습니다.》

최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대동강건제기동련단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올린 문학작품집 《선군로마 달린다》(2)를 보아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미 2년전에 문학작품집 《선군로마 달린다》(1)를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신 아버지 장군님의 은정어린 사랑은 《선군로마》를 읽고 수도의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물동량

을 보장하기 위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이곳 운전자들을 비롯한 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고 힘의 원천이었다.

우리가 작품집을 한장한장 펼쳐가는데 플라보게 달린 생활조건과 환경에서 종업원들이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대동강건제기동련단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두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터치는 격정의 목소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삶의 근지와 보람은 결코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향락을 누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뚫어 써주는 창조와 투쟁속에 있습니다.》

최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대동강건제기동련단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올린 문학작품집 《선군로마 달린다》(2)를 보아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미 2년전에 문학작품집 《선군로마 달린다》(1)를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신 아버지 장군님의 은정어린 사랑은 《선군로마》를 읽고 수도의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물동량

대동강건제기동련단 일군들과 로동계급

사람들의 심장을 팡팡 울려 주었다.

《경경도가 결코 실천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로 되기 까지는 부닥치는 난관도 헤쳐야 하고 평도 많이 흘려야 합니다. 애로와 난관을 뚫고 우리의 손으로 기어올라 후방기지를 보란듯이 일떠세우십시오.》

그의 호소는 종업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후방기지를 꾸리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순간의 추중도 모르고 오직 앞으로만 내달리는 김경남동무의 완강한 일분새와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후방기지의 면모는 나날이 눈에 띄게 달라져갔다.

하나를 보며서는 자기들의 창조물들을 보다 종업원들이 기쁨을 금치 못할 때 일군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새로운 일감을 찾아내기 위해 사색을 거듭하였다.

김경남, 김창수, 김환중동무들 비롯한 일군들이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떠나라 앞으로!의 구령을 따라서 이신작적으로 종업원들을 위훈으로 불러일으켰다.

짧은 기간에 태양열은실, 정양소와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이 일떠섰고 평, 메추리, 토끼, 오리, 개사니우리들이 손색없이 꾸러졌다.

일터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날이 변모되어갔고 종업원들의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일욕심도 컸었다.

로력이 모자랐고 먹이문제 해결이 어려워졌지만 문제로 되지 않았다. 모두가 두류, 세류도 성차지 않아 달리고 또 달렸다. 기업소주내에 정성껏 심고 가꾸고있는 사과, 배, 복숭아, 대추나무를 비롯하여 20여종의 채소도 달리고 또 달렸다. 기업소주내에 정성껏 심고 가꾸고있는 사과, 배, 복숭아, 대추나무를 비롯하여 20여종의 채소도 달리고 또 달렸다.

일군들의 문명수준에 따라 종업원들의 문명수준이 높아진다.

김경남동무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며 실현하는 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태도는 그대로 우리 것을 하나 설계하고 건설해

도 종업원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데로 지향되었다.

새로 살림집을 건설할 때에도 자체들이 부족되었지만 하도 결심한 종업원들에 의하여 남들의 눈밖에 난 《버럭》이 훌륭한 견제로 되었고 불가능하던 서비체제에 양어장과 휴식장소가 손색없이 꾸러져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었다고 전두령, 박영무동무들은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군대원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로 받는 영광을 지녔 것도,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선군봉화상》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공동대회 승승기를 수여받으수 있는것이 이들을 창조하고 누리는 문명한 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대동강건제기동련단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령에서 일군의 박동과 전진의 북을 맞추며 《선군로마》를 타고 10월의 대추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본사기자

최첨단기술을 개척하며 비약하는 대 조국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참가한 총련대표단 1명인 황철홍 제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회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 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이번 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내 나라, 내 조국이 가

까운 앞날에 세계를 끌어보는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으로 일떠서리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조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식 CNC의 성공은 선진기술이 결코 발전된 일부 나라들의 독점물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질풍같이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기세준계전진하는 조국인민들과 마음과 승물을 맞추어 힘차게 나아가

인공지능위성 《광명성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우리의 원로원들이 거거한 주체철생산체제가 실현되었으며 주제섬유 비날론이 생산되고 도처에서 최첨단기술에 기초한 생산공정들의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는 등 성과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다.

우리 해외동포과학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기세준계전진하는 조국인민들과 마음과 승물을 맞추어 힘차게 나아가

일조국교정상화를 촉진하는 가나와현민의 회 대표단

여러곳 참관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인간재현행진상조사단 일본인중증양분부 공동대표 하라다 아끼히로를 단

장으로 하는 일조국교정상화를 촉진하는 가나와현민의 회 대표단이 주체사상상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깊이 전하는 데 기념비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탑신과 순상들을 돌아보았으며 라틴정대에 올라 평양시의 전경을 보았다.

대표단은 또한 개신문, 인민대학습당 등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인디아 글로벌강철주식회사대표단 만경대 방문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인디아 글로벌강철주식회사대표단 1명인 황철홍 제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회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 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이번 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내 나라, 내 조국이 가

까운 앞날에 세계를 끌어보는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으로 일떠서리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조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식 CNC의 성공은 선진기술이 결코 발전된 일부 나라들의 독점물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질풍같이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기세준계전진하는 조국인민들과 마음과 승물을 맞추어 힘차게 나아가

인공지능위성 《광명성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우리의 원로원들이 거거한 주체철생산체제가 실현되었으며 주제섬유 비날론이 생산되고 도처에서 최첨단기술에 기초한 생산공정들의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는 등 성과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다.

우리 해외동포과학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기세준계전진하는 조국인민들과 마음과 승물을 맞추어 힘차게 나아가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통성번영의 담보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올해에도 자주의 기치 밑에 발전과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자주와 발전을 높이 들고 나아가려는 것은 진보적인민들의 변함없는 의지로 되고있다.

그것은 아직도 지구상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을 말할 때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지난해 말엽에 제국주의자들은 《반테르겐》의 확대를 부르짖으며 중동지역에 침략무력을 증강배치할 계획을 실행하였으며 유럽에 새로운 미개입방위체제를 배비할 흉계를 꾸미었다. 올해 들어와서도 제국주의자들은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침략위협과 위협압박행동에 광분하고있다. 또한 올해부터 중동지역에서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학살하는 침략세력의 만행이 횡포하게 강행되고있다.

이러한 사태들은 올해에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들의 반자주적이며 반사회적인 책동이 더욱 악랄해졌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것은 진보적인민들로서 하여금 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제국주의, 지배주의반대투쟁을 보다 즐겁게 벌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남로 로동조합있는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세력들의 반자주, 반사회적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적인 새 사회,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해나가는것은 진보적인민들의 민족적 및 국제적일부로서, 시대적과제로 되고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다.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자주적립장을 더욱 확고히 지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성을 옹호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든든히 지켜야 합니다.》

자주적립장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리이다.

다시말하여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혁명적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 나가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하고 책임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진시키기가 못시키는지 하는것이 좌우된다. 진보적인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관계속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지 못하면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립장으로서는 사명을 수행할수 없게 된다.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 번째로 중요한 정제이며 제일생명이대.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지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 이미 이룩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할수 있으며 나라의 진정한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정치에서 독자적인 주권과 결실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국제적실정과 조건,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기 자신의 정치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주적립이 없이 남의 압력이나 지시에 따라 정치를 하는 정권은 외세의 간섭과 전횡에 굴복하여 제국주의를 못하게 되고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오늘 세계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민족적존엄과 리익이 침해당하고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분쟁 등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 제국주의자들이 내리먹이는 《민주주의》, 《인권》, 《타당성》와 같은 사방식 《처방》을 받아들인 후파이다.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의 지도 사상과 확고한 신념, 굳센 의지와 담력, 배짱이 없이는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할수 없다. 민족자주정신과 굳은 신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에서 자주적립을 든든히 세워야 한다. 자주성의 원칙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의 호상존중을 요구하며 온갖 간섭과 예측을 반대한다. 자주성의 원칙을 지키는 여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발전의 담보가 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데서 또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는것이다.

경제적립장은 자주독립국가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나라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고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칠수 있으며 자주성을 지킬수 있다. 경제의 자립성이 없으면 인민들의 늘어나는 물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없는것은 물론 정치적자주성도 보장할수 없고 자위적인 국방건설도 다그칠수 없다. 남에 대한 경제의존은 정치적으로도 이어진다. 그러므로 경제적립장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시기 경제적립장을 강화하자면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립적민중경제를 건설하고 그 잠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우하며 자기 나라의 자립과 자국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가 바로 자립적민중경제이다. 자립적민중경제발전은 경제적립장강화와 번영의 열쇠가 있다.

그 누구도 남에게 경제적립장과 번영을 선사하지 않는다. 자력갱생하는 길만이 자립적으로 살아가갈수 있는 길이고 이 길에 나라의 경제적번영과 민족부흥의 담보가 있다.

경제적립장을 보장하는데서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경제의 《세계화》에 환상을 가지지 말고 그를 경계하는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파국적인 세계금융위기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의 《세계화》정책이 강행된 후파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의 《세계화》정책은 전세계적범위에서 《금융 폭풍》을 몰아와 많은 나라들의 사회

경제생활을 혼란에 빠뜨렸다. 현실은 경제적립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서방세력들이 제창하는 경제의 《세계화》를 배제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자기를 보위하는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방에서의 자위는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 요구이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자기를 보위할수 있는 군사적립을 키워야 한다. 자위적국방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자위적국방력은 자주독립국가의 군사적담보이며 자주권수호의 믿음직한 보장이대. 힘이 있어야 용기가 생기고 배심이 든든해진다. 군력이 강해야 자주적립도 든든히 견지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군사적간섭행위가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군사적립을 키우고 부단히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군사적립이 강해야 적들이 감히 범접 못하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킬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로선에 기초하여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메어주고 사회주의호전,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펼쳐는 우리 인민의 자랑스런 투쟁력사 그것을 힘증해준다. 선군은 곧 정승이고 애국자이다. 우리 공화국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인민들은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을 엄격하게 틀어쥐고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인 새 생활,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어나가야 할것이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위장번영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채 일 출

국제 사회 계의 목소리

오늘 국제사회의 이목은 정치사상강국, 경제강국의 지위에 맞는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천만민군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온갖 난관을 뚫어나가며 새 로 혁명적대고조를 거세한 열풍속에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비약체제나 압력도 사회주의강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조선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꺾을수 없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미국의 기만술책과 흑심전술을 일깨우고 생산에서 일대 공세를 벌인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조선인민의 올해사업의 총적방향이이며 경제건설과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은 온 나라가 올해공동농사철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나라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8년 말 말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천리마재건합격수료식을 맞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선포하시며, 농업을 지주적업으로 대우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은 온 나라가 올해공동농사철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나라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8년 말 말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천리마재건합격수료식을 맞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선포하시며, 농업을 지주적업으로 대우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은 온 나라가 올해공동농사철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나라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8년 말 말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천리마재건합격수료식을 맞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선포하시며, 농업을 지주적업으로 대우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은 온 나라가 올해공동농사철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나라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8년 말 말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천리마재건합격수료식을 맞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선포하시며, 농업을 지주적업으로 대우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은 온 나라가 올해공동농사철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나라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8년 말 말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천리마재건합격수료식을 맞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선포하시며, 농업을 지주적업으로 대우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은 온 나라가 올해공동농사철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동하고있으며 인민들은 한결같이 강대국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혁명적대고조가 소기의 성과를 안아올것이라고 믿고있다. 단마르크스신문 《아바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서의 힘찬 경제건설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체제나 압력도 사회주의강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조선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꺾을수 없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미국의 기만술책과 흑심전술을 일깨우고 생산에서 일대 공세를 벌인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조선인민의 올해사업의 총적방향이이며 경제건설과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은 온 나라가 올해공동농사철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나라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8년 말 말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천리마재건합격수료식을 맞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선포하시며, 농업을 지주적업으로 대우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은 온 나라가 올해공동농사철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나라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8년 말 말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천리마재건합격수료식을 맞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선포하시며, 농업을 지주적업으로 대우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은 온 나라가 올해공동농사철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나라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8년 말 말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천리마재건합격수료식을 맞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선포하시며, 농업을 지주적업으로 대우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은 온 나라가 올해공동농사철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나라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8년 말 말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천리마재건합격수료식을 맞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선포하시며, 농업을 지주적업으로 대우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은 온 나라가 올해공동농사철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나라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8년 말 말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천리마재건합격수료식을 맞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선포하시며, 농업을 지주적업으로 대우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은 온 나라가 올해공동농사철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한마음뜻으로 뭉치고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무조건 끝까지 실현하려는 천만민군의 놀라운 정신력의 의해서 마련될수 있었다고 평하였다.

플로카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제건설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최근 조선에서는 금속, 전력,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조선인민은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움으로써 선군조선의 위용을 높이 떨칠 것이라는 열에 충만되어있다.

메히코신문 《우니다드 나시 오날》은 조선인민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자기 나라가 이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일보에 당당히 보여주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김정일영도자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온 세상에 위용떨치는 자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있으며 경제강국의 목표까지 실현하여 강성대국을 완전한 면모를 갖추려는 신심에 넘쳐있다고 전하였다.

우크라이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의 전국조정위원회 명예위원장인 조진민은 천리마재건군을 계승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물리치고 강성대국건설의 방대한 목표를 가이 달성함으로써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줄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최근 정부는 54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할대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그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정부에서 발전소건설에 많은 자금을 할당하기로 하였다 한다.

싱가포르에서 3월 29일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즈 타임스》는 올해 6-7월에 자기 나라가 첫 산위성으로 우주에 발사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인디아의 안드라 프라데쉬주

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이 위성은 무게가 120kg으로서 토양정식상태를 측정하고 환경변화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사진자료들을 전송하게 된다.

부르키나파소에서 부르키나파소에서 지난해 11t 642kg의 금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그 전체 생산량의 2배이상에 달하는것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유물 발굴

수리아의 고고학자들이 최근 랑가에서 750-1258년 시기의 유물들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유물들은 도자기, 철그릇을 포함하여 총 149점으로서 당시 문화와 사회발전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될것이라고 한다.

신협동감리회 브라질에서 A(H1N1)형 돌림감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3월 25일 이 나라 보건성은 올해 들어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6명의 신형독감환자가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나라에서 예방접종캠페니아를 벌리는 등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격에 어울리지 않게 다른 나라들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거들며 혼시질하는 내정간섭행위를 하여 국제적인 반발과 비난을 사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 전 미국부성이 세계인권형편에 관한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여기에서 세계 190여개 나라와 지역들의 인권형편에 대하여 제러투대로 평가하면서 이라쿠처럼 허담을 늘어놓았다. 말하자면 미국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국제인권제판관》 행세를 하고있는것이다. 까놓고말해서 미국은 인권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인권유린의 왕초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미국이 일킨 이라쿠 정황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전쟁들은 수많은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인간살육전, 전대미문의 인권탄압전이다. 지금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무고한 주민들이 미제침략군의 탄압과 군사작전으로 피해를 입고있다. 파키스탄과 일본, 남조선 등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통일을 수호할것을 호소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가 3월 29일 한 회담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수호할것을 인민의 요구로 호소하였다. 그는 다음해에 남부수단문제와 관련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나라의 통일을 수호할것을 호소

팔레스타인민의 위업을 지지

팔레스타인민들의 위업을 지지

일본국유역정객의 러무니없는 망발

일본의 국유역정객의 러무니없는 망발

파키스탄에 대한 미군의 계속되는 공습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르》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에 대한 공습만행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3월 27일 미군은 북부과 지르산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일본국유역정객의 러무니없는 망발

일본의 국유역정객의 러무니없는 망발

일본의 국유역정객의 러무니없는 망발

일본의 국유역정객의 러무니없는 망발

일본의 국유역정객의 러무니없는 망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담화 《비무장지대의 안전정치를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될수 없다》는 3월 29일 30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여 미국측이 단사분개선 비무장지대에 남조선이 벌리고있는 전선을 반대하는 음모책동을 당장 중지시킬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격에 어울리지 않게 다른 나라들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거들며 혼시질하는 내정간섭행위를 하여 국제적인 반발과 비난을 사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 전 미국부성이 세계인권형편에 관한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여기에서 세계 190여개 나라와 지역들의 인권형편에 대하여 제러투대로 평가하면서 이라쿠처럼 허담을 늘어놓았다. 말하자면 미국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국제인권제판관》 행세를 하고있는것이다. 까놓고말해서 미국은 인권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인권유린의 왕초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미국이 일킨 이라쿠 정황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전쟁들은 수많은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인간살육전, 전대미문의 인권탄압전이다. 지금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무고한 주민들이 미제침략군의 탄압과 군사작전으로 피해를 입고있다. 파키스탄과 일본, 남조선 등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통일을 수호할것을 호소

팔레스타인민의 위업을 지지

일본국유역정객의 러무니없는 망발

일본의 국유역정객의 러무니없는 망발

일본의 국유역정객의 러무니없는 망발

대변인은 이미 남조선군부가 15개의 《언론》기관들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취재지원을 위한 방화각서》라는것을 체결하고 그들을 비무장지대는 물론 그와 관련한 전역일대에 끌어들이어 반복모략자료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보도하기로 작정하였다는것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이 모든 움직임은 정전협정을 안착시키지 않고 비무장지대를 남북심리전장으로 만들고 조선반도의 전방정세를 긴장시키려는 행위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정전협정체결당사자인 미국

미국이 격에 어울리지 않게 다른 나라들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거들며 혼시질하는 내정간섭행위를 하여 국제적인 반발과 비난을 사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 전 미국부성이 세계인권형편에 관한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여기에서 세계 190여개 나라와 지역들의 인권형편에 대하여 제러투대로 평가하면서 이라쿠처럼 허담을 늘어놓았다. 말하자면 미국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국제인권제판관》 행세를 하고있는것이다. 까놓고말해서 미국은 인권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인권유린의 왕초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미국이 일킨 이라쿠 정황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전쟁들은 수많은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인간살육전, 전대미문의 인권탄압전이다. 지금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무고한 주민들이 미제침략군의 탄압과 군사작전으로 피해를 입고있다. 파키스탄과 일본, 남조선 등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통일을 수호할것을 호소

팔레스타인민의 위업을 지지

일본국유역정객의 러무니없는 망발

일본의 국유역정객의 러무니없는 망발

일본의 국유역정객의 러무니없는 망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일자리 죽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제침체로 일자리축감사태가 계속 벌어지고있다. 3월 26일 주당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2월에 주적으로 2만 4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실업자 증대

오스트랄리아공화국은 최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2월에 전국적으로 실업자가 2

61만 59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1월에 비해 1만 700명 더 늘어난 것이다 한다.

캐나다의 몬트리올시에서 3월 18일 18일 통기부비피사건이 발생하여 주민들속에서 커다란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었다.

이날 2명의 무장강도가 한 상점에 뛰어들어 마구 총질을 하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 그 부상을 입혔다 한다.

필리핀에서 3월 25일 리히터척도 6.1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바랑가시로부터 서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보다 앞서 23일 루손섬에서 리히터척도로 각각 6.1, 5.9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라오야로부터 41km, 46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다.

일본에서 3월 25일 리히터척도 6.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라오야로부터 41km, 46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다.

일본에서 3월 25일 리히터척도 6.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라오야로부터 41km, 46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다.